

데스크 시각



윤영기
멀티미디어 부장

최근 딸아이가 아침 밥상머리에서 조 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밤 11시쯤 광주 광산구에 있는 대학교로 데리러 와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었다. '무슨 일이 냐고 물었더니, 광주에서 첫 개최되는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월드 챔피언십 4강전을 보러 간다는 것이다. 이 인터넷 게임의 객석을 확보하기 위해 딸아이는 이미 엄마와 줄다리기에 끝을 관람권 구입비 5만 원을 받아 갔던 모양이다.

쏟아지는 잠을 쫓아내고 경기 종료 시간에 맞춰 딸아이를 데리러 가서는 적이 놀랐다. 수많은 10대들이 출구에서 쏟아져 나와 전세 버스에 오르는 것이었다. 이들은 전국에서 경기장을 찾은 팬들이었다. 딸은 '우리나라 선수가 8강전에서 모두 탈락하는 바람에 그나마 관람객이 적은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 게임'을 'e스포츠'라고 부르는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7년 e스포츠 실태 조사'를 보니, 지

디지털 세상살이의 힘겨움

난해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실시간 방송) 분야 매출은 136억50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41%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 케이블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도 인터넷 게임을 방송에 본격 도입한 경우다.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코를 박고 있는 젊은 그들을 이해 못하는 '꼰대'들에게 디지털 현실은 견딜 수 없는 격벽이다. 그 변화의 속도는 족달불급(足跡不及)이란 말로도 부족하다.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유튜브(YouTube)만 봐도 그렇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18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4.2%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다. 일각에서 '유튜브 대세를 일명 '갓(God) 튜브'라고도 부른다. 아직도 '네이버에 물어보'는 세대는 이제 구닥다리라는 편견을 들어야 할 처지다.

숨 가쁜 변화의 물결

중장년이 책이나 포털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달리 10대는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고 지식·정보·경험을 습득한다. 유튜브에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실현되고 있다. 당장 자신의 관심사를 검색해 보면 왜 10대들이 유튜브에 꽂혀 있는지 알 수 있다. 유튜브를

움직이는 힘은 보상(돈) 체계다. 전 세계 크리에이터(동영상 제작자)가 만든 동영상상을 최소 1000명(구독자) 이상 보면 구글이 광고를 붙여 주고 그 수익금을 크리에이터와 분배한다. 유튜브로서 돈과 명성을 거머쥔 스타도 속속 탄생하고 있다. '막방' (먹는 모습 보여 주는 방송) 유투버 '벤쯔', 메이크업 유투버 '이사베', 게임 중계 유투버 '대도서관' 등이 그들이다. 고백하자면 기자는 2016년 광주 세계 웹콘텐츠 페스티벌의 홍보 대사로 광주를 찾았던 대도서관을 알아보지 못했다. 자식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의 사인을 받기 위해 5·18광장에 줄을 섰던 부모들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젠 유투버가 대세여서 유행과 돈 냄새에 민감한 공중과 방송조차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앞다퉈 '파워 유투버'를 고정 출연자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한때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왔던 기자들도 이젠 유투버로 갈아타고 있는 지경이다. 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군에 유투버가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다.

교육에서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중장년이 대학 컴퓨터 실습 시간이나 접했던 코딩이 초등학교 정규 과목이 됐다. 교육부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의무화했다. 코딩

교육은 컴퓨터 언어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교과 과정이다. 코딩이 의무 교육에 편입된 이유는 명료하다.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모든 것이 컴퓨터, 즉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이다.

신세계에 도전하자

중·장년들에게 디지털 세상은 어찌던 디스포피아일지도 모른다. 디지털 세계를 숨 가쁘게 쫓아가는 대신,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라는 우스개 푸념이 들려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젊은이의 전유물로 알려진 코딩이나 드론 등 신세계에 도전하는 노장들 역시 의외로 많다. 이들이 앞으로 IT 관련 직장에 취업할지,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를 창업할지는 알지 못한다. 바라건대, 이들 중에서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인 와카미야 마사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올해로 82세인 그는 일본 전통 인형을 순서대로 맞추는 무료 퍼즐 게임 '히나단'(hinadan)을 만들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디지털 세상을 외면하고 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눈과 귀를 닫고 살면, '내가 경험하고 살아온 세상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것만은 자명하다.

/penfoot@kwangju.co.kr

社說

‘광주형 일자리’ 어떡하든 되살려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 ‘광주형 일자리 반드시 성공시키자!’ 옛그제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완성차 공장 유치’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의 플래카드에 적힌 구호들이다. 이날 대회에는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을 중심으로 250여 개 시민 사회단체와 수많은 대학생들이 참석했는데 완성차 공장 유치 성사를 바라는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바로 이러한 플래카드 구호에 담겨 있다 하겠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지역 노동계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물론 광주시는 현대차와의 협상 재개에 나섰지만, 지난 5일 잠정 합의안이 이사회를 거친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대차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노사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 기간’을 둘러싼 마찰로 같은 분위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올해로 82세인 그는 일본 전통 인형을 순서대로 맞추는 무료 퍼즐 게임 ‘히나단’(hinadan)을 만들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우리가 봉인가” 해룡 산단 기업들의 호소

순천 해룡산단 입주 기업 대표들은 요즘 눈앞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부담과 금융권 상환 압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수백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지었지만 인허가 기관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당초 약속과 달리 일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해룡산단에 입주 계약을 한 A기업은 등기가 되지 않은 탓에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타 은행 거래마저 제한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재경난에 시달리는 해룡산단 입주 기업은 23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광양경제청과 시행사인 대우건설의 다툼이 원인이 되고 있다. 양측은 애초 해룡산단을 두 개 지역으로 분리해 먼저 공사를 완료한 2·1단계는 일부 준공 인가를 해주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올해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준

공 신청을 하자 광양경제청은 폐수처리 시설 증설 비용 문제를 빌미로 모두 반려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증설 비용은 2~2단계 시행 과정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고 광양경제청은 이를 받지 못하겠으니 지금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결국 ‘고래 싸움’에 애꿎은 입주 업체들만 우란을 맞고 있는 것이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최근 모임에서 “경제를 들게 하려는 기업에게 이런 행정 갑질이 많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광양경제청은 애초 낮은 분양가와 세금 감면 등을 홍보하며 기업들을 적극 유치했다. 그런데 막상 입주하니 자원을커녕 시행사와 다툼으로 기업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산단 이미지에 막걸을 하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입주업체들을 불모로 한 힘겨루기를 당장 중단하고 시행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공 신청을 하자 광양경제청은 폐수처리 시설 증설 비용 문제를 빌미로 모두 반려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증설 비용은 2~2단계 시행 과정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고 광양경제청은 이를 받지 못하겠으니 지금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결국 ‘고래 싸움’에 애꿎은 입주 업체들만 우란을 맞고 있는 것이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최근 모임에서 “경제를 들게 하려는 기업에게 이런 행정 갑질이 많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광양경제청은 애초 낮은 분양가와 세금 감면 등을 홍보하며 기업들을 적극 유치했다. 그런데 막상 입주하니 자원을커녕 시행사와 다툼으로 기업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산단 이미지에 막걸을 하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입주업체들을 불모로 한 힘겨루기를 당장 중단하고 시행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적국에서 쓴 편지



강대석
시인·행정학박사

“전하! 신(臣)이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전하께서는 구중궁궐에 계시므로 왜국의 사정을 접할 기회가 없으시고, 그간 이곳을 다녀간 사신들은 있지만 오가는데 바쁘는데 저들의 감시가 삼엄하여 이곳 사정을 살필 기회가 없으며, 포로로 잡혀있다 풀려난 난 사람들은 대부분 천인들로 속박과 같아서 보고 들은 것이 정확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이 감히 죄를 무릅쓰고 왜국의 사정을 적어 보내오니 신이 별 불일 없는 인물이라고 여겨 이 글까지 버리지는 마시고 끝까지 읽고 참고하신다면 적을 막아내고 적을 잡아

심문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간양록’ 1599년 4월 10일) 이 글은 정유재란 시 일본에 포로로 끌려간 영광 불갑 출신 수은 강항(綱恒 姜沆) 선생이 왜국의 사정을 기록해 보낸 ‘적중봉소(敵中封疏)’의 첫 대목이다. 당시 31세의 강항은 일본 이예주(오스시)에서 몇 번의 탈출에 실패한 후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그곳 출석사 승려 호인(法印)과 필담을 통해 교류하면서 그의 도움을 받아 남몰래 비밀 정보 보고서인 ‘적중봉소’를 작성했다. 그 내용은 왜국의 정세, 인사 정책, 국방 정책, 축성술, 왜장의 명단과 성향, 왜국 66주도의 지도와 지역별 기후와 풍토 등이 담긴 귀중한 정보였다. 강항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세 부를 등사한 후 반드시 조선의 조정에 보내기로 작정했다. 첫 번째 ‘적중봉소’는 1598년 4월 울산사람 김석복에게 보냈다. 김석복은 원래 권술 장군의 집안 중으로 임진왜란 때에 잡혀와 이예주에 살

고 있었는데 그가 풀려 귀국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한 부를 건네주며 조정에 전하도록 했다. 두 번째 ‘적중봉소’는 1년 뒤 고도 후시미(북경성)로 이송되어 있을 때 명나라 차관 왕건공이 서해 근처에서 묵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어렵게 왕건공을 접견한 뒤 몰래 한 부를 보냈다. 세 번째 ‘적중봉소’는 무안사람 신경남이 귀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한 부를 보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보낸 ‘적중봉소’는 결과적으로 명나라 차관 왕건공에게 보낸 것만 1599년 6월에 선조 임금에게 전달되고 나머지 두 건은 전달되지 못했다. 선조임금은 ‘적중봉소’를 받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강항의 우국충절을 높이 칭찬한 뒤 대신들과 변방의 장군들에게 돌려보도록 했다. 7년 전쟁 중 처음으로 왜국의 소상한 정보를 한눈에 알게 된 것이었다. 강항은 이렇게 ‘적중봉소’를 보내는

한편, 2년 8개월의 포로 생활 중 교토에서 왜소 후지와라 세이가(藤原嘉高)를 만나 주자학을 전수하여 일본 사상계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막부시대 주자학이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면서 무사 사회가 문민 사회로 변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올해는 수은 강항 선생이 서거한지 4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지난해 영광군에서 열린 수은 강항 선생 국제 학술세미나에는 일본 강항연구회 무라카미 쓰네오(村上柵夫) 회장 일행이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했다. 일본인임에도 국적을 떠나 400년 전의 인물을 우리보다 더 깊이 연구하여 소상히 알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삼 우리의 모습이 되돌아보겠다. 사실 우리 강항 연구 모임 하나도 없지 않은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먼저 연구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기 고

원전 안전과 독립 전문가의 역할



이정운
원자력 안전과미래 대표·기계기술사

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은 아직도 방대하고 지속적인 방사능 재해로 인해 접근 불가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결국 인간의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는 중대 사고를 초래한 원전 사고는 인적 오류에 의한 결과로 단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전은 고온 고압으로 핵물질들을 다루기 때문에 까다로운 품질 요건을 요구한다. 또한 인간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및 정비 과정에서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 연방법 10CFR 50 부록 B 요건’에 부합하는 까다로운 원자력 품질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품질 요건은 절차를 어떻게 구성해 만들고, 어떻게 준수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최근 영광 지역의 한빛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도 있는 제반 현상들은 대부분 절차 준수 요건의 부실성에 기인한다. 사실 엄격하고 까다로운 제반 품질 절차들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운영 담당자에게 주어지므로, 이를 조금만 무시해도 상당한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엄청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절차의 완

벽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엄수하는 안전 문화의 구축과 감시 체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진흥 문화에 몰려서 폐쇄적으로 운영된 게 사실이다. 원자력 안전 문화가 제대로 싹트지 못한 것이다. 독일은 자율적이지만 인간 속성에 기반한 철저한 감시 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안전 문화를 투명성에 두고 원자력투명성법을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쇄적 조직 문화와 비교해 둘째가라면 서러운 일본은 신사업정도로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을 위한 제도로 된 철학도 문화도 찾아볼 수 없이 현안 대응만 전전하는 모습이다.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타 지역에 비해 원전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한빛 원전은 적극적인 주민 참여에 의해 많은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독립한 원전 전문가의 부재로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소통과 감시를 위한 객관적인 독립 전문가가 존재하고 활동해야 원자력 안전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17개 원전을 운영할 당시 발전소 안전 감시를 위해 투입하는 독립 전문가가 1500명 안팎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4기 운영 원전에서 정부 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가 500명 정도에 불과하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제대로 된 안전 감시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주민 참여는 규제 권한을 가진 정부 요청에, 독립전문가에 의한 ‘제3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게 필자 생각이다. 현재처럼 원전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직접적인 비용 지원 아래 이뤄지는 독립 전문가의 감시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원전 사업자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와 주민 사이에서 ‘하청구조’로 인해 독립 전문가의 과학기술적 평가 의견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전문가가 종속되는 이른바 ‘종속적인 하청 형태’는 우수한 독립 전문가를 단순 사업자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주민 참여에 의한 ‘독립적인 원전 전문가의 감시’라는 현명한 선택의 기회는 있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와 지역주민, 원전 사업자 모두의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無等鼓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어릴 적의 습관이나 버릇 혹은 행동 양식은 어른이 되고 나이를 들어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다. 이를 보면 우리 선조들도 그만큼 유아 교육을 중요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아 교육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모들의 관심사다.

미국 작가 로버트 풀컴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꼽힌다. 그는 이 책을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라고 말한다.

“무엇이든 나눠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마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마라,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라.”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러한 규칙들을 일찍이 유치원에서 배우고 익혔다는 것이다. 작가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 질서와 규칙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습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인격 형성과 사회 적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과연 실천하며 살아 가고 있는가를 돌이켜 볼 수 있게 한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인 사랑과 위생, 환경과 정치, 평등, 건강한 삶 등 모든 사회적 규범을 사실상 유치원에서 학습해 왔다. 그리고 이를 평생 습관처럼 가져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을 유치원에 지원하고, 학부모들은 환경·교육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비용을 더 주더라도 좋은 유치원을 찾는 지 모른다.

한데 그동안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불투명

한 회계 처리 등을 보면 이들이 과연 교육 사업자인지 영리 사업자인지 도저히 탐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라고 말한다. “무엇이든 나눠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마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마라,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라.”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러한 규칙들을 일찍이 유치원에서 배우고 익혔다는 것이다. 작가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 질서와 규칙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습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 부 220-0632	여 론 매 체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